



궁·금·힘·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 사 양 ● ●

Q 사육환경(온도, 습도, 기류,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돼지의 육질 변화(등급 관련)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기관들을 검색해 본 결과, 사육환경에 있어서 적정온도, 적정습도 등은 나와 있지만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A <이재춘 한별피그클리닉 원장>
사육환경에 따른 돼지의 육질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있는지 저도 아직은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돼지가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육환경, 예를 들면 환기불량으로 가스가 심하다든가, 섯바람, 또 온도 및 습도가 매우 높거나 반대로 극심하게 춥거나 할 경우 돼지의 성장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비육돈의 균일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같은 일령에서 같은 사료를 급여하더라도 개체별로 편차가 커지므로 육질이 전반적으로 저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발육하는 돼지는 체형이 좋고 규격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좋은 품질의 돈육을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Q 주간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주간 종부 두수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만사에서 모돈의 문제가 많을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돈을 도입할 때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도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요. 무조건 모돈 300두면 월 10두 정도 무조건 갱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잡아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산차 구성이 일단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호르몬 처리든 발정 동기화든 간에 종부 계획에 맞춰 후보돈 갱신 및 이유두수 조절을 하되, 분만 스톨, 핑크(재발, 유산 등 사고모돈)에 맞추는 것이 어렵겠지만, 후보돈은 10~15% 수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노산돈이나 문제돈 도태 등을 조절하면 될 것입니다.

● ● 번식 및 육종 ● ●

Q 교배 15일후 농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궁세척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해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A 〈이준길 북부시센터 대표〉
교배 후 재발이 오는 일령에 따라 원인을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교배 후 21일 전후는 교배적기 판단실패, 정액불량 등 교배의 실패로 보며, 교배 후 30일 전후는 임신초기 관리 잘못으로 인한 착상실패로 판단합니다. 또 교배 후 15일 전후 농을 동반한 재발의 경우는 비위생적인 교배로 판단합니다.

비위생적인 교배라 함은 자연교배시 웅돈의 표피세척 불량, 비위생적인 상태에서의 교배, 또한 인공수정시 암태지 외음부의 세척불량, 정액주입기의 세척불량 등으로 인한 세균의 오염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교배시 위생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후 교배 전까지 이유돈방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이유돈방이나 후보돈방은 수세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발정시 자궁이 열림으로 이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도 분만하지 않은 후보돈에서 농이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했는데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는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희 농장은 시센터에서 구입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를 서로 다른 정액으로 주입을 했을 때 착상과 번식 성적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보돈이 발정이 오지 않는데 발정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심금섭 연암축산대 교수〉
1, 2차 주입하는 정액은 비육정액일 경우도 동일한 정액이나 동복의 웅돈의 정액을 주입

하는 것이, 한배에서 태어나는 자돈의 유전적 능력의 차가 거의 없고 체형도 동일하여 관리에 용이합니다. 착상과 번식성적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후보돈이 발정이 오지 않는 경우는 영구황체가 있어 난포발달이 되지 않아 발정이 안 올 수도 있고 영구황체가 없는 경우도 난포발육을 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발정이 지연되거나 미약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영구황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영구황체를 퇴행시키기 위해 루테라이제를 주사한 후 만 3일후 난포발육을 위한 목적으로 PMSG를 700단위 근육주사를 실시하면 5일 이내에 발정이 오게 됩니다.

지속발정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교배시 hCG를 700단위 근육주사하여 배란을 유지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도 발정이 오지 않는 후보돈은 난소기능부전에 걸려 있을수 있어 불임돈으로 판명하여 도태시켜야 합니다.

호르몬 주사는 유효기간 내에 호르몬을 사용하고 냉장보관 하여야 하며 천천히 주의깊게 주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질 병 ● ●

Q 혈청검사 결과 PRRS 번식돈의 경우 모돈과 Bb, Pm, APP2, M.Hyo 번식돈의 경우 모돈과 APP5 12주령에서... 답변이 왔는데 위의 영어들이 무슨 뜻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황윤재 금오BPC 상무〉
1) PRRS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orcine Respiratory Reproductive Synd-

rome)의 약칭

2) Bb : Bordetella bronchiseptica(위축성비염 원인균의 일종)

3) Pm : Pasteurella multocida(폐렴과 위축성비염 원인균의 일종)

4) APP :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홍막폐렴균)

5) M.Hyo : Mycoplasma hyopneumoniae(유행성 폐렴 원인균)

약칭 뒤의 숫자는 혈청형을 의미합니다.

Q 자돈설사가 심해요. 이유 후 10일경이면 계속 자돈설사가 반복됩니다. 약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A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유 후 10일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안타깝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온도적응이나 사료의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질병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세균성 설사인데 항생제의 투여에 잘 반응하는 시기이니까 세균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받은 후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길항목적으로 아트로핀을 사용하는데 인체 용 1바이알을 돼지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A <황윤재 금오BPC 상무>
중독증이 아닌 증상에 대해서는 대개 45kg당 1ml (2.0mg역가의경우)를 정맥 또는 근육, 피하 등으로 주사할 수 있습니다. 농약, 살충제 등(유기인제)중독 같은 중독증상의 경우는 체중 45kg당 5ml씩 투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반복투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제는 부교감신경 차단제의 하나로 인체분야에서는 극약의 일종으로 여지고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약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 및 정책 ●●

Q 이유자돈부터 비육돈까지 카드를 만들어 걸 때 카드 안에 기록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장에서 출하돈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A <안기홍 양돈컨설팅연구소 소장>
1) 이유부터 출하까지 현황판(카드)은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

2) 생일 - 이유일 - 이유시 상태

3) 사료교체예정일 - 출하예정일 - 백신예정일

4) 사고기록, 치료기록 등 특기사항 등

위의 사항을 중심으로 농장여건에 맞도록 응용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가족처럼 기른돼지 우리돼지 행복돼지